

|| 태재연구재단 브리핑

연구주제 개괄

[개요]

- 미래사회로 가는 통과 관문인 4 대 주제,
1) 갈등에서 협력으로 대전환, 2) 지속불가능 극복, 3) 디지털사회 선도, 4) 미래가치 창조
의 해결과, 초일류화를 위해서는
1) 미래산업 육성, 2) 사회 핵심분야 최정상화, 3) 선출직 인재 양성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 미래 선출직 인재를 미래사회의 기반이 될 미래도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산학 창조플랫폼을 조성
과 운영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리빙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래형 국가협력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공동체로의 진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선출직 인재를 기득권층을
설득하고 반대를 극복하는 비전제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안목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도덕성·역량 갖춘 선출직 인재 양성 연구를 통한 초일류사회 경영]

- 사회 주도 핵심인 선출직 인재에 대한 검증 부족한 현 상황
- 선출직 인재의 자격 검증을 위한 평가 기준 정립의 필요성 : 도덕성과 역량
- 해당 지역 경쟁력과 삶의 질을 비용효율성 있게 향상시키는 선출직 인재 양성 방안 연구
- 선출직 인재양성 방안 연구를 통한 초일류사회 도약 및 경영방안 모색

현재 선출직 인재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 삶을 좌우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러나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기
영합하는 선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들은 충분한 역량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도덕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 기준 정립을 통해 올바른 선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비용효율성 있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시민들은
평가를 통해 재선출하고 이러한 과정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위대한 인재를 나라의 명운을 바꾸기도 한다. 불과 240 여년 전 식민지에서 갓 독립한 미국과, 100 여년 전
소규모의 힘 없던 조직이었던 중국공산당이 각각 세계 최강국과 지금의 중국공산당으로 발전한 것은 이들을
이끈 뛰어난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출직 인재 육성 방안 연구는 한반도 초일류사회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채용인원수

팀원 0 명